

## 지붕위의 축제

Feast on the Roof

focus

지붕 위 실루엣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영화 지붕위의 바이올린의 감동이 다시 생각 나며 또한 EMI건물 지붕위에서 게릴라형식의 공연으로 세계에 게릴라 콘서트란 새 장르를 만든 영국의 비틀즈도 지붕 그 현대의 평평한 지붕을 감사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한참 전 한남동에 사무실을 틀 무렵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한 옆집의 지붕은 늘 다양한 박스에 담긴 아채들이 준비하여 도시의 새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잘 생긴 옥상정원은 물론 아니었고 재활용으로 얻은 박스들 안에는 가지런히 흙이 담겨 상추며 고추 등등 여러 아채를 키워내는 참으로 어쭙잡은 옥상채전이였다.

이젠 시절이 바뀌어 이런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고 도시의 옥상은 전원도시의 새로운 상상을 시작해 내는 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친환경이란 사고의 구조는 건축을 일면 다양하게 녹화하는 양상으로 드러났고 랜드스케이프 건축은 건축의 모습을 새로운 땅의 조직을 보여주는 풍경의 변화를 일구어 냈다.

에밀리오 암바즈가 만들어 가는 건축들처럼 우리의 건축도 아주 친근한 모습의 자연적 옷으로 모습을 바꾸어 등장하기 시작했고, 건축물의 내외부가 푸른 옷을 입고, 지붕은 대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 사색적 모습을 의태하여 땅을 닦아가는 지평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스들은 사라지고 단단한 지붕은 흙으로 덮여 땅이 키우던 그 식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안고 있다.

전원도시의 축제를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조하던 건물의 옥상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잔디와 나무들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도시의 새로운 휴식공간이 틈을 타고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틈의 미학일 수도 있고 자연에 대한 깊은 향수 때문이기도 할 것이나 전원을 그리워하고 식물과 동행하고자 하는 생물학적 본능이 부른 행태일 수도 있다.

일찍이 영국의 전원도시의 이상은 “과밀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 레이몬드 안윈의 가든시티 무브먼트를 시작으로 확대되었고 그들 사고의 사유와 실천적 측면 모두를 사로잡아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이상도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런던교외의 햄스테드와 햄스테드 히스는 이런 전원도시를 실현하려 했던 대표적인 지역으로 기억된다. 공원에 난 길로 한 시간 쯤 걸어야 도달하는 파빌리온은 산책의 반환점이기도 하고 휴식과 만남, 미술과 음악 등 지역이벤트가 있는 공동체의 집합과 풍경의 정점이 되는 랜드스케이프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주거지의 풍경은 당연히 자연과 경계를 지니면서도 자연의 일부로 건축이 포함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한편 지금 우리의 도시와 농촌은 어떠한가.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꿈과 이상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답은 모두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 못함을 아쉬워할 것이다. 그 도시의 틈바구니 속 지붕을 위해 비워둔 한줌 지붕 마당위에서 어렵게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바라보며 거창한 화두로 시작된 우리건축의 생태성과 친환경성을 조심스레 생각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좀 어렵게 보이는 과장된 모습들도 드러나기 시작하여 불안감을 주기도 하며 실현 가능한 우리사회의 건강한 조직인지 먼저 살펴보는 지혜도 아울러 같이 들어 있었으면 싶다. ■



김병운 / Kim, Byung-yoon  
대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영국 AA School 수학
- 한국건축가협회 편찬위원장
- SAKIA 총괄교수